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황인범, 동점골에 역전골 어시스트까지...한국, 체코 2-1 제압 32강 '예약'	스포츠	
2	정청래 대 김민석, 이번에도 '당심 대 의심' 구도일까	정치	

(1)기사/뉴스요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에서 1골 부족한 2위로 올라섰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준비한 전술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날 체코는 예상대로 장신군단으로 선발을 꾸렸다. 측면 수비수인 블라디미르 초우팔과 공격형 미드필더 파벨 슐츠 두 선수만 170cm대의 작은 선수일 뿐 나머지는 190cm를 넘거나 근접하는 큰 선수가 출전했다.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만 188cm. 한국(182cm)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오히려 한국이 공격을 풀어가는 돌파구였다. 상대의 느린 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조금씩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선봉장으로 나선 손흥민(LAFC)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가 흔들렸다. 득점을 기대할 만한 찬스를 놓친 게 아쉬웠다. 손흥민은 전반 39분 역습 찬스에서 왼발슛이 골대 옆을 스쳐갔고, 전반 45분에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찬스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며 슈팅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은 후반 11분 이재성(마인츠)의 침투 패스에 이은 슈팅까지 골키퍼에게 가로 막혔다.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니 위기가 찾아왔다. 21세기의 또 다른 대세로 떠오른 롱스로인이 문제였다. 후반 14분 오른쪽 측면에서 날라온 롱스로인을 놓친 사이 체코의 '캡틴'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올버햄프턴)에게 선제 헤더골을 내줬다.

황인범이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의 해결사였다. 황인범은 후반 22분 후방에서 연결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롱패스를 잡아챈 뒤 골키퍼를 속이는 로빙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느릿한 포물선을 그린 공이 떨어지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다. 크레이치가 마지막까지 걷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인범은 후반 35분 추가골까지 도왔다. 황인범은 오른쪽 측면까지 달려든 뒤 골문을 향해 쇄도한 오현규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배달했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강렬한 왼발슛으로 골키퍼의 손까지 밀어내면서 결승골을 책임졌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가 꿈꾸던 첫 득점이자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은 김승규가 체코의 반격을 막아내는 두 차례 선방쇼까지 벌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요약 :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 홍명보호가 2-1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 헤더골을 내줬다. 그러나 후반 22분 황인범이 로빙슛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오현규가 후반 35분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골키퍼 김승규가 두 차례 선방쇼를 벌이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2)기사/뉴스요약

오는 8월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국회의원 표심)의 구도가 재현될 지 관심이 모인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는 벌써 1인1표제를 강조하는 등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총리 측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뿐만 아니라 당심도 쏠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방정식을 다시 가동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심에 기대 박찬대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당시 정 대표는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를 얻었는데 15%가 반영되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에서 53.1%를 획득한 박 의원을 여유 있게 제쳤다.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월 당헌당규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그것이 1인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1인1표제로 바꾸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축인 판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원들 요구대로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 총리는 일단 의심에서 앞선다고 본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 상당수는 김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 총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만큼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의심의 쏠림이 있을 것으로 김 총리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대 의심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꿔야겠다는 신호를 줬기에 이번 선거는 의원들(대 당원들) 구도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가 의지할 데가 강성 유튜브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다수 의원이 모여 (후보가) 대세임을 보여주는 모양새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다”며 “정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부각하며 (김 총리는)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의원들이 세 과시하는 것에 당원들이 반감이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승패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이 크게 영향받는 유튜브 지형으로 보면 정 대표의 당원 지지세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숫자로 판가름난 적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이 지 않나. 지방선거 책임론까지 일면서 정 대표가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두 달 뒤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당대회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 : 8월17일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해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친명계 의원 상당수의 지원 사격이 예상되며 높은 득표율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 정치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중복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야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야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진상규명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